

기술투자 생태계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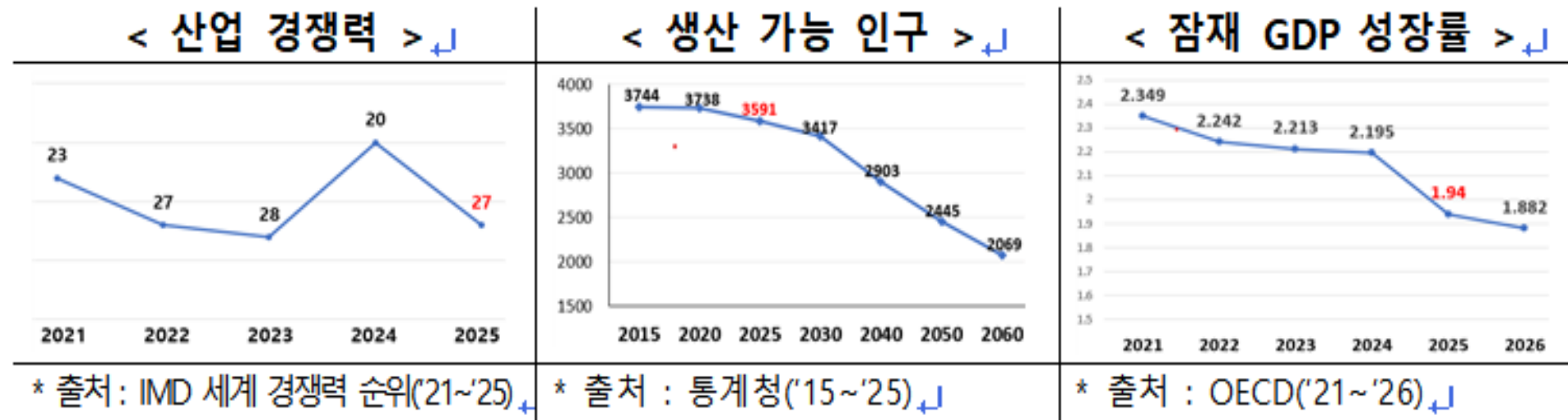
2025.11.26

유진투자증권
신성장전략투자실장
이 옥 형

1. 논의 배경

1

한국은 산업 경쟁력 약화, 생산가능 인구 감소, 잠재 성장률 악화 등 장기적 경기 침체 우려 확산 중으로 기술주도 성장 필요



- 딥테크 기반 혁신성장,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, 유니콘 50개 육성, 지역창업 활성화,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

1. 논의 배경

2

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정부 역할의 비중, 중요성을 감안할 때,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업, 이를 통한 자발적이고 선순환적인 투자를 촉진이 매우 중요

< 미국 VC 생태계 >

- 시장 기반의 자율적 VC 성장
-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은 다양한 LP 구조
- 메가펀드 중심(수천억~수조원 단위)
- 시리즈별 대규모 후속투자 가능
- 시리즈 B~D 이후 스케일업자본 풍부
- 나스닥·NYSE 상장 시장 활발, M&A 활성화(테크 대기업 중심)
- 글로벌 시장 기반
- 정부보다는 시장이 주도
- 세계 최대 VC 시장(글로벌 VC의 50% 이상 비중), 실리콘밸리 중심 글로벌 허브

< 한국 VC 생태계 >

- 정책펀드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
- 정책자금 비중 높음(모태펀드, 성장금융 등)
- 소형, 중형 펀드 위주
- 대규모 후속 투자 여력 제한
- 스케일업단계(시리즈B~C) 자본 부족
- IPO중심(코스닥/코넥스), M&A는 제한적(제도적, 시장적 깊이 부족)
- 국내 시장 중심, 글로벌 진출은 선택적
-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
- 아시아에서 3~4위권 시장, 정책펀드 규모는 세계 상위이지만, 자율성은 제한적

1. 논의 배경

- 3 '00년대 초반 벤처정책이 본격 시행될 당시에는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음.
'14년경 창조경제 프레임 채택 당시 '창업생태계'가 정책에 본격적으로 포함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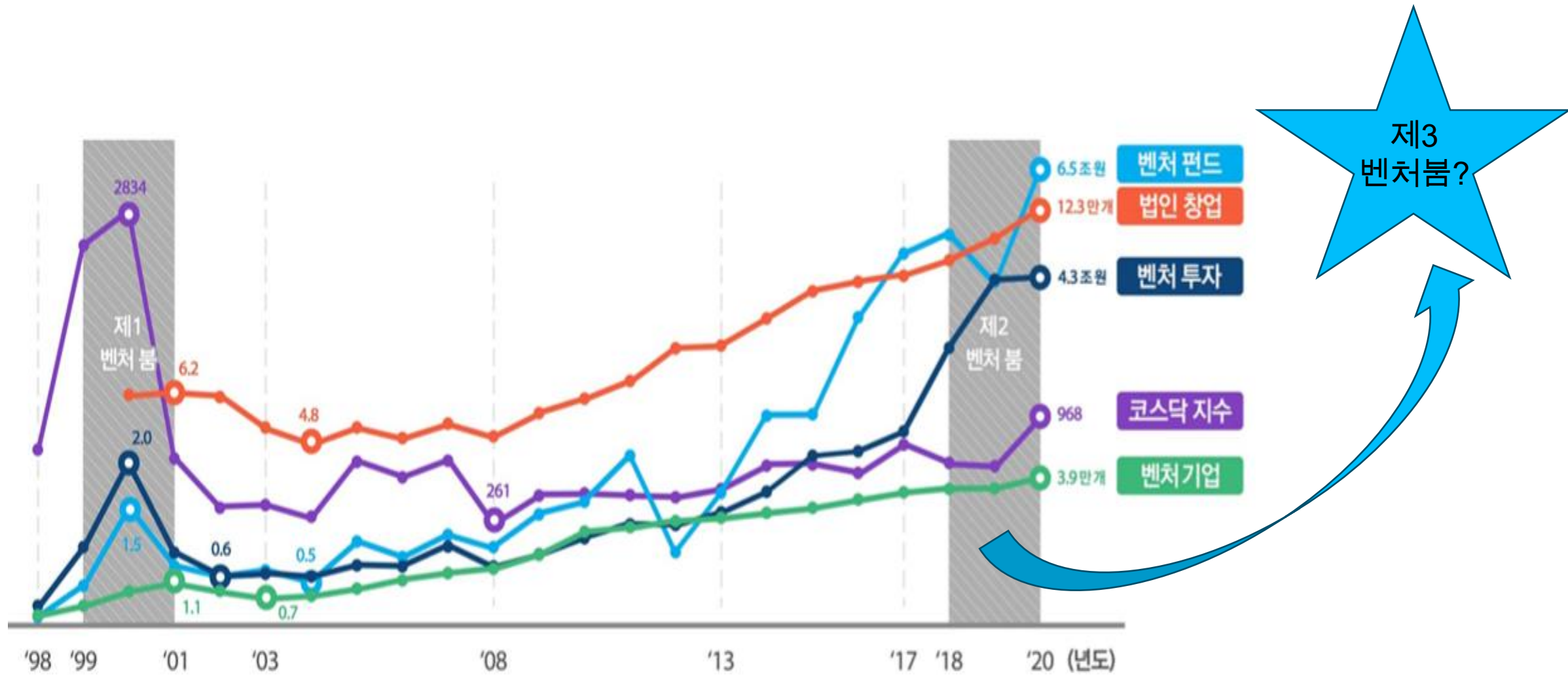
< 2015년 창업생태계 >

- '17년 등록 AC 54개사 ('19.8 기준)
- VC 115개사 ('15.12 기준)
- CVC 사실상 0 ('21.12.30부터 허용)
- 엔젤투자클럽 36개
- 벤처투자 2.1조/펀드결성 2.6조
- 정책금융 비중이 높고 민간 연기금, 기관투자자는 '관심 시작' 단계
-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되지 않음
- 글로벌 창업 생태계 랭킹: 서울 20위
- 국내시장 위주, 소수 성공사례
- 안정적인 직장 선호, 파산/연대보증 부담

< 2025년 창업생태계 >

- '25년 등록 AC 492개사 ('25.9 기준)
- VC 248개사 ('25.9 기준)
- CVC 110곳 이상
- 엔젤투자클럽 268개
- 벤처투자 11.9조원/펀드결성 10.6조원('24)
- 민간(연기금, 금융지주 등) 비중이 정책자금보다 커짐
- 지역 소재 VC, AC 증가
- 글로벌 창업 생태계 랭킹: 서울 10위
- 유니콘, 딥테크 포함 글로벌 플레이어 증가
- 스타트업 출신의 대기업 등 취업 사례 증가, 학생, 연구자, 퇴직자 등 다양한 창업

1. 논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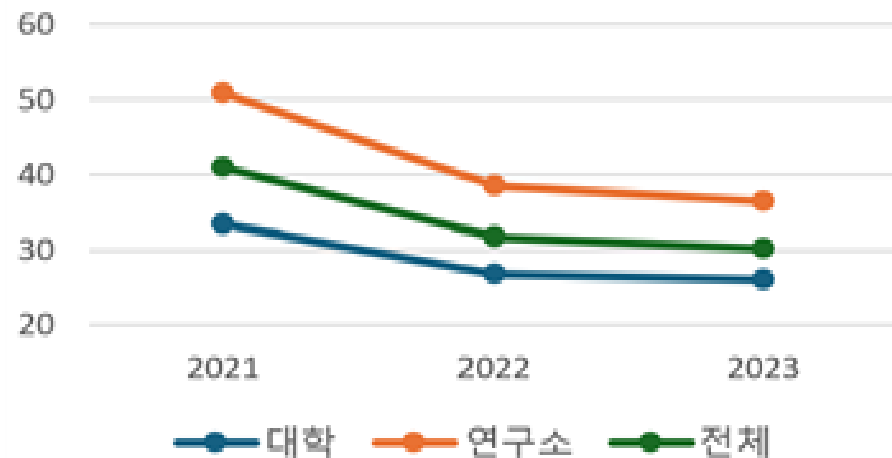


2. 현황과 이슈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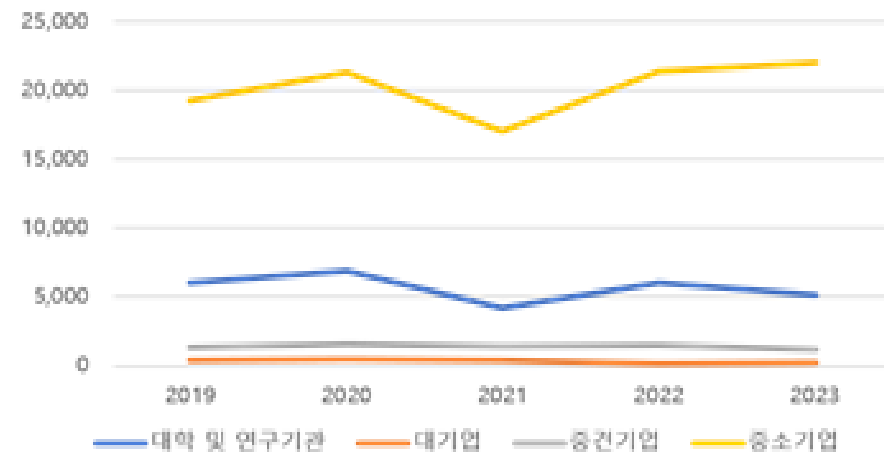
한국의 R&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, 대학·출연연 공공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

< 대학·연구기관 기술이전율(%) >



* 출처 :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(산업부, 2024)

< 주체별 사업화 건수('19~'23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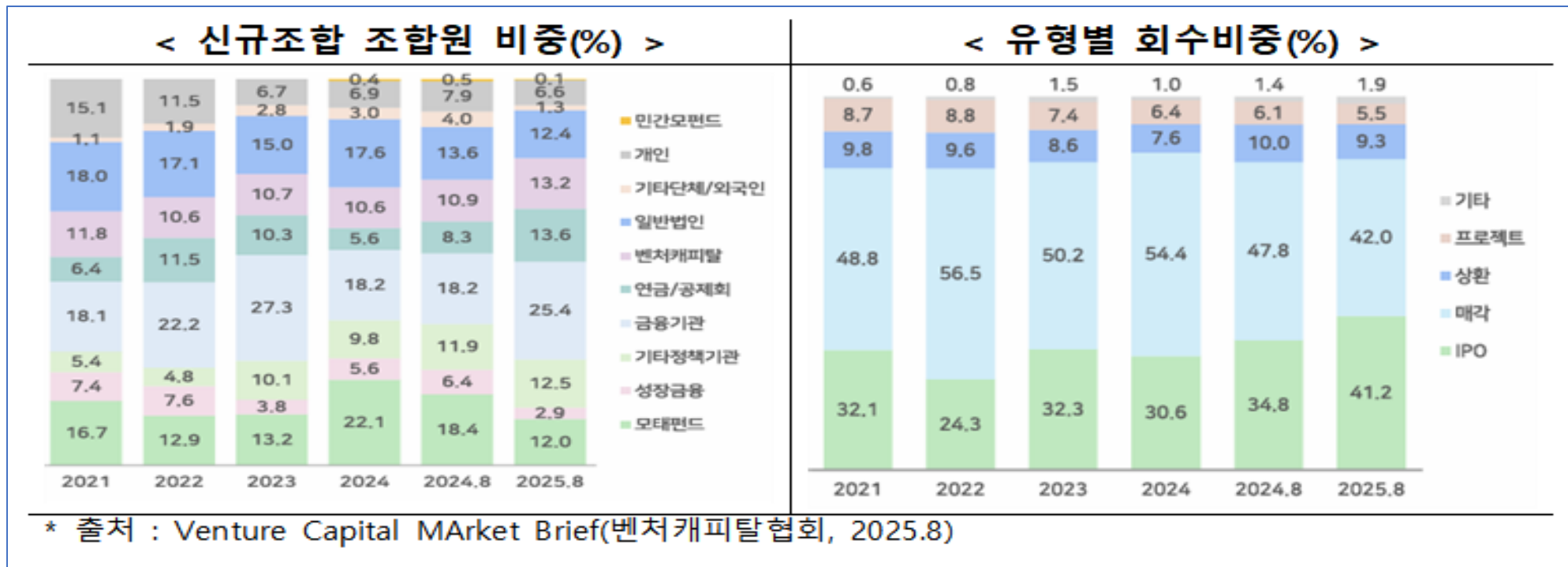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과학기술통계-통계상세분석-조사분석 가공(NTIS)

2. 현황과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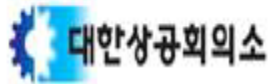
2

'25년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규모는 5.7조원, 벤처펀드 결성 6.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.5%, 19% 증가.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29.7% 증가한 29.9억원

- 벤처펀드 결성 측면에서 민간 출자의 비중이 커졌으나, 여전히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
- IPO를 통한 회수가 늘고 있지만, 매각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

2. 현황과 이슈



자료명	벤처캐피탈 투자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조사
엠바고	11월 21일(금)자 조간(통신, 인터넷 등은 11/20(목) 12:00부터)
문의처	금융산업팀 송승혁 팀장(02-6050-3841, 010-8983-8938), 김민우 연구원(3843)

‘불장’ 열기, 벤처투자업계에는 아직 못 미쳐

- 벤처캐피탈 113社 조사... 최근 1년간 과거보다 ‘투자자원 조달 어려워져’(63%), ‘투자금 회수 어려워져’(72%)
- 정책금융 출자 받은 벤처캐피탈 75%에 달해... 그러나 그중 92%가 ‘민간자금 매칭 어려움’ 경험
-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 : ‘기술특례상장 개선’(69%), ‘산업-금융 공동CP 허용’(62%) 등 주로 꼽아
- 수도권 쏠림(81%) 심각... ‘모태펀드 내 권역별 펀드 신설’(26%), ‘지방 스타트업 클러스터 확대’(24%) 등 중요

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사항 1순위



*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(스타트업얼라이언스)

2. 현황과 이슈

3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화 R&D와 정책펀드를 운용 중

-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특정산업 분야 지원 펀드간 투자대상을 점검, 펀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필요(주목적 투자분야, 운용기간, 투자조건, 인센티브 등을 더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)
- 2024~2028년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 규모는 약 33.8조원이나, 세컨더리 펀드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
- 정부-국회-민간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부분과 민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
- 기업의 성장은 연속적 vs 정부의 지원은 비연속적

3. 정책방향

1 정부 R&D – 산업정책/규제완화 – 창업정책간 연계

- 기업의 성장단계, 업종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연계/효율화 할 필요
- 중복분야, 중복단계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목적을 차별화
(예시) 과기정통부에서 출자하는 펀드의 경우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자 조건을 조정
- 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자금 규모와 방향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(예: 3년)하여 조정

3. 정책방향

2 기존 사업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Fine-tuning

- 신규사업을 기획, 런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상황과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지속적으로 fine tuning할 필요

< 스케일업팁스 사례(중소벤처 R&D 혁신방안, 2025.9.25.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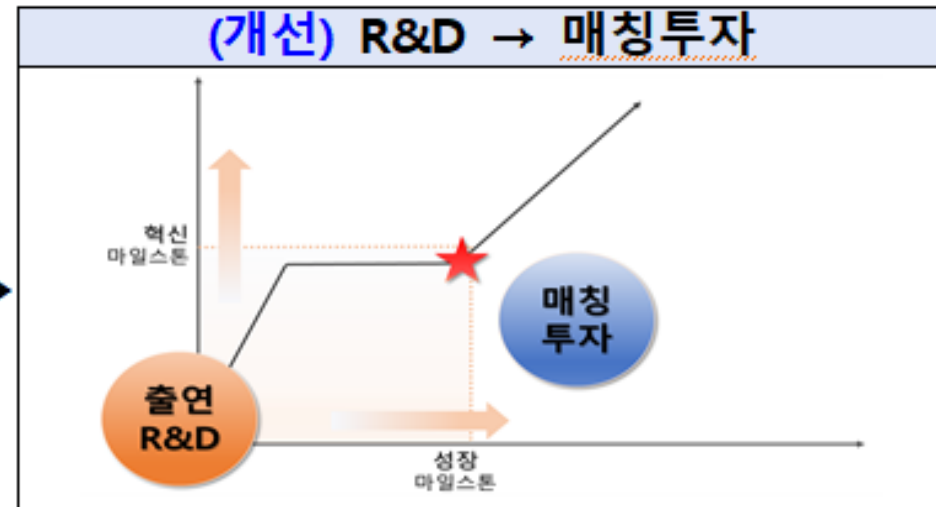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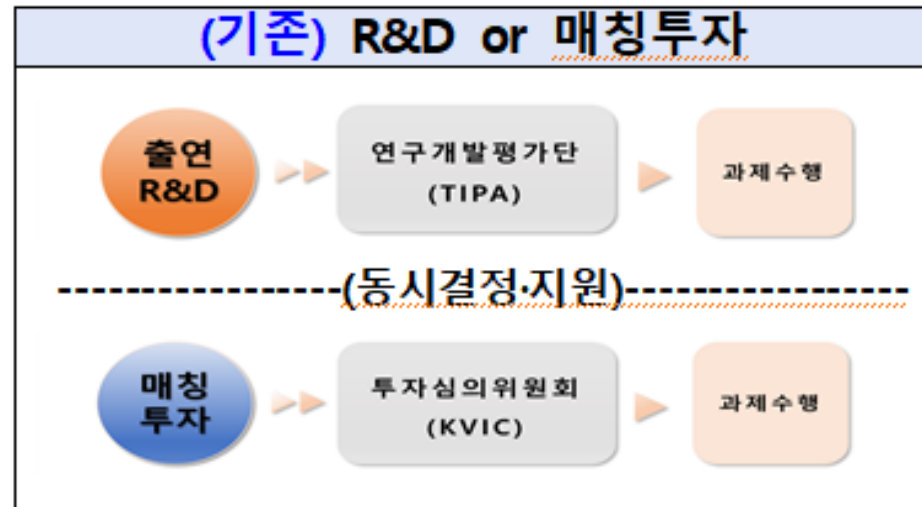
- 「팁스방식 R&D」를 기존 창업기업 지원 중심에서 성장촉진 및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

성장단계	창업(팁스)	성장(스케일업 팁스)	글로벌(글로벌 팁스)
민간 선투자	2억원 이상	10억원 이상	15억원 이상 & 해외투자
정부 R&D	2년 8억원 (연간 800개)	3년 20억원 ~ 30억원 (연간 300개)	4년 50억원 ~ 60억원 (연간 100개)

3. 정책방향

2 기존 사업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Fine-tuning

- R&D 매칭투자를 기업 선정단계에서 R&D 수행 이후 단계 지원으로 개편하여 R&D 성과 기업에 대한 후속 민간투자 유인 및 사업화 촉진



3. 정책방향

2 민간의 역량과 역할이 커진 만큼 정부주도 창업생태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

- 정부는 Rule-setting, 민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, 기울어진 운동장 조정 등 역할
- 생태계내 주체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섬세한 정책 설계
- 시장이 어려울 때 정부는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
- 정부 지원 자금은 진정한 ‘모험자본’으로서 역할 필요
- 정부는 초기/장기/시장 실패영역에 대한 지원 강화 (→ 정부사업에 대한 KPI 정비)
- 민간 생태계 활성화기 필요한 영역은 규제개선, 세제 지원 등 정책 중심

3 금융위와 중기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생태계와 자본시장을 함께 고려한 장단기 벤처금융 정책을 운영할 필요

-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+ 비상장데이터 플랫폼
- 기업의 성장 단계, 여건 등에 따라 출자와 대출이 탄력적으로 제공될 필요

감사합니다